

(mix)’의 관점으로 보더군. 따로 떼어놓고 보면 도무지 어울릴 법하지 않은 이질적인 두 사물, A와 B의 조합에서 ‘AB’가 아니라 낯선 ‘가나’가 탄생하고 ‘대박’으로 이어진다는 거야. 그 책에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다양한 사례가 나오니, 꼭 보렴.